

EU 연구혁신 주간 동향 보고

<26.05.20, 한-EU연구협력센터>

○ AI를 활용한 연구비 제안서 폭증, 유럽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(5.12)

- 전 세계적으로 AI를 이용해 작성·보완된 연구비 제안서가 급증하며 심사 부담과 선정률 하락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
- 전문가들은 AI가 기존 경쟁형 연구비 배분 시스템 자체를 흔들 수 있다고 우려하며, FP10 논의가 이에 충분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
- ERC는 재지원 제한을 검토하고, EU 내부에서는 일정 기준 이상 제안서를 무작위 선정하는 '연구비 추천제'도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음

○ EU, 과학 외교 통해 유럽 가치와 학문의 자유 확산 추진(5.15)

- EU 회원국 정부들은 과학 외교를 활용하여 유럽의 핵심 가치를 국제적으로 확산하는 방안에 원칙적으로 합의 (권고안은 5월말 공식 채택 예정)
- 권고안은 각 회원국이 EU 우선순위와 연계된 국가 차원의 과학 외교 로드맵을 마련하도록 권장하고 있음
- 집행위는 회원국 간 역량격차를 줄이고 공동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EU 안팎의 과학외교 활동을 정리하는 '과학외교 매핑' 작업을 추진할 예정

○ AI 기반 기상 예측, 유럽의 전략적 과제로 부상(5.13)

- AI 기반 기상 예측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, 유럽에서도 이를 전략 과제로 인식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됨
- 현재 AI 기상 예측 분야는 구글·애플·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이 주도하고 있어, 유럽 자체의 데이터·슈퍼컴퓨팅 역량 확보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
- 유럽은 호라이즌 유럽 등을 통해 자체 AI 기상 예측 생태계 구축에 나서고 있으며, 전문가들은 기존 물리 기반 예측과 AI를 결합한 '하이브리드 모델'이 현실적인 해법이 될 것으로 전망

○ (기타) ▲준회원국 대학들, FP10 논의에 의사결정 참여 보장 요구(5.14) ▲유럽이 학문의 자유를 통해 글로벌 인재를 유치해야 한다는 요구 제기(5.14) ▲Choose Europe for Science 시범 사업 선정기관들, 박사후연구자 지원 계획 공개(5.12)